

# 대학국제화의 걸림돌과 해결방안

박전홍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소장

## I. 세계적 추세인 학생의 이동성

대학은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 내 유일한 지식 공급원이 아니며, 대학의 학생은 더 이상 동일한 언어, 문화, 종교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교육내용과 학습성과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 학생이 지원하며, 학생의 국가 또는 지역 간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해외 유학생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sup>1)</sup> 2025년에는 유학생 수가 지금의 3배가 넘는 7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해외 유학생 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30만 명, 싱가포르는 15만 명, 말레이시아는 10만 명, 우리나라는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계획이다. 두바이의 지식마을<sup>2)</sup>, 카타르의 교육도시<sup>3)</sup>와 같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대학국제화의 과정에서 학생, 연구인력, 교수와 돈의 이동이 동반된다.

2007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는 217,959명,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49,270명이다<sup>4)</sup>. 2007년 4월 국외 한

국인 유학생은 대학원과정에 41,993명(19.3%), 대학과정에 81,972명(37.6%), 어학연수과정에 93,994명(43.1%)이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과정에 9,885명(20.1%), 대학과정에 32,056명(65.1%), 어학연수과정에 14,184명(28.8%), 기타 3,030명(6.1%)이 있다. 2007년 언어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대학생이 93,994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3.1%에 이르며,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 49,270명보다 많은 수이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율은 어학연수과정이 230%로 높은 반면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율은 학위과정이 739%로 높다<표 1>. 2001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 국외 한국인의 유학비용은 417% 증가하였으나, 국내 외국인의 유학비용은 259% 증가하였고, 2006년도 유학비용은 44억 3천만 달러의 지출초과를 나타낸 반면 미국의 국제교육수지 흑자는 13억 5천만 달러로 5번째로 큰 서비스 수출항목이다.

대학을 방문한 사람이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7년 4월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은 7개이다<표 2>.

1) UNESCO. Global Education Digest 2006.  
 2) 두바이 지식마을. <http://www.kv.ae/en/default.asp> 2008. 4. 5.  
 3) 카타르 교육도시. <http://www.qf.edu.qa/output/page301.asp> 2008. 4. 5.  
 4) 유학생현황. <http://www.index.go.kr> 2008. 4. 2.

이들 대학의 유학생 수 합은 전체 유학생 수의 4.4%에 불과하며, 332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단지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고 국제화가 잘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제화가 잘 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곳은 없으며 현재 대학국제화 성과지표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나 외국인 교수 수의 비율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표 1. 국외 유학생 파견과 국내 유학생 수용의 증가율<sup>5)</sup>

구분	2001	2003	2005	2007	
파견	학위과정	100	90	92	114
	어학연수	100	151	224	230
	비용지출	100	173	316	417*
수용	학위과정	100	184	359	739
	어학연수	100	59	95	235
	비용수입	100	137	117	259*

\* 2006년도 자료임.

표 2. 유학생 연간 유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국내대학<sup>6)</sup>

대학명	언어연수	학부	대학원	기타	계
이화여자대학교	1,663	87	116	247	2,113
연세대학교	947	284	421	246	1,898
경희대학교	715	353	346	77	1,491
고려대학교	645	167	345	201	1,358
서울대학교	360	210	720	57	1,347
한양대학교	373	448	234	38	1,093
청주대학교	5	645	90	14	1,054

로 외국인 유학생 수, 원어민 교수 수와 영어강좌 수, 총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 등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학국제화 성과지표의 미비, 지표별 정의의 명확성 부족, 국제화 통계 수집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8)</sup> 현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다. 연구 성과로 국제학술지(SCI) 논문 수나 논문인용 지수를 사용하며, 국제학술지는 주로 자연과학, 의학, 공학 분야의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논문 수는 2001년 14,162편으로 세계 14위에서, 2006년 22,750편으로 세계 11위다.<sup>9)</sup>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좋은 예로, 일본 북서부 아키타현에 있는 공립대학인 아키타국제대학<sup>10)</sup>을 들 수 있다. 2004년 4월 설립된 이 대학예산 1천 4백만 달러 중 지방정부가 3/4을 지원한다. 대학이 “세계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사명을 갖고, 교환학생에게 제공하는 일본어와 일본학 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한다. 모든 신입생은 1년 이내에 TOEFL 성적 500점 이상이 되며, 성적 550점이 되면 재학 중 1년 간 해외대학 수학이 의무화되어 있다. 전임 교원은 44명이며, 이 중 50%가 외국인이다. 총 학생 수 559명 중 외국 유학생이 70명(12.5%)이다. 4학년의 절반은 적어도 한 학기를 더 이수하며, 졸업생의 취업률은 100%이다. 이 대학의 연간 수업료와 생활비는 총 천만 원이며, 수업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삼성경제연구

## II. 대학의 국제경쟁력

대학의 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 수와 인용지수, 영어 강의 수를 증가시키는 노력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은 거의 외면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어 왔다.<sup>7)</sup> 대학국제화 지표



그림 1. 일본 아키타국제대학의 수업과정

5)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008. 4. 5.

6)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oe.go.kr/main.jsp?idx=0306050101>, 2008. 4. 2.

7) 광병찬. 대학경쟁력 목표는 것들. 한겨레신문. 2007. 6. 19.

8) 최정윤.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2007년 KAFSA 추계 컨퍼런스. 2007.12.13-14. 제주.

9) 한국학술진흥재단. SCI 인용지수 분석연구.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2008. 4. 5.

10) 아키타 국제대학. <http://www.aiu.ac.jp>

소가 2008년 3월 10일부터 보름간 인터넷으로 토론하고 한국대학신문이 분류한 결과<sup>11)</sup>, 교수 질 향상 및 우수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는 정부의 대학 평가, BK21 선정과 대학의 신입교수 채용 및 승진 시 주요 기준이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수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우수 교원의 기준이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수 연간 몇 편 또는 소속 교원의 상위 10%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실용교육의 기준은 학생인가 기업인가? 대학 신입생이 1년 후 도달하여야 하는 외국어실력은 일본 아키다국제대학과 같은 TOEFL 성적 500점이여야 하는가? 등의 의문이 제기됨에도 결국 대학의 외국어교육이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007년 대학생 93,994명이 어학연수를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에서 볼로냐 선언<sup>12)</sup>은 유럽대학의 국제적 수월성을 증가시키고 시민의 이동과 취업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 29개 국가가 1999년 합의한 볼로냐 선언은 2010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실천계획이다. 볼로냐 과정은 대학의 표준화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다양성과 자치권의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대학 단독으로 또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표 3.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백분율
교수 질 향상 및 우수교원 확보	21.4
기업 맞춤형 실용교육	10.2
대학 자율화	9.2
대학 구조조정	9.2
산학협력 강화	8.1
대학 특성화	7.1
국제화 및 국제교류 강화	6.1

### Ⅲ. 대학국제화의 걸림돌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때로는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이후, 정부는 세계화의 영문표기를 Segyewha로 결정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을 때까지 세계화의 정의나 핵심가치는 공유되지 못하였다.<sup>13)</sup> 당시 세계화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아직 국제화와 Globalization과 Segyewha의 의미와 어떤 핵심가치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제화는 국가별 개별 가치를 인정하며 서로 다른 가치를 수용하는 것 또는 세계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Globalization은 국가별 개별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경없는 경쟁이 이뤄지는 기술과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국제화의 정의나 핵심가치는 공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 대학국제화의 핵심가치로 1999년 유럽의 볼로냐 선언을 수용하고자 한다. 볼로냐 선언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처리 시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볼로냐 선언의 목표는 학위기준, 노동시장에 적합한 3년 이상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 평생교육을 포함한 학점인정체계(ECTS), 교육 품질관리, 학생과 교수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대학국제화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대학교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핵심가치다. 대학국제화의 걸림돌은 국제화라는 용어의 정의와 핵심가치가 공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볼로냐 선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재적 학생 수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이 0.2%로 OECD 국가 평균 6.4%중 최하위다.<sup>14)</sup> 학생과 교수의 이

11) 윤지은, 한국대학신문, 2008. 3. 31.

12) Bologna Declaration, <http://ec.europa.eu/education/policies/educ/bologna/bologna.pdf>

13) 성한용, 신문과 방송 2007년 2월호, 13-17.

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동을 제한하는 유학생의 대학입학자격과 수업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홍보, 비자와 취업기회, 숙소, 수업에 사용하는 언어, 외국인 교수의 자녀를 위한 학교와 배우자를 위한 사회활동 기회 등이 대학국제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구중심대학의 핵심요소가 뛰어난 교수진, 준비가 된 학생, 충분한 제도적 자원이라면<sup>15)</sup>, 대학국제화의 핵심요소는 정부나 대학경영자의 비전, 구체적 목표설정,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sup>16)</sup>은 워싱턴 협약에 가입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으며 2007년 6월 가입하였다. 1989년 체결된 워싱턴 협약은 참가국이 공학계열 졸업자격의 상호인정과 인정한 공학계열의 졸업생을 대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인증의 목적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스위스 로잔의 경영대학원인 IMD 피터 로랑지 총장은 ‘한국은 폐쇄돼 있고 개방해야 한다. 한국은 스피드가 부족하고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 두 가지로 한국대학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를 설명한다.<sup>17)</sup>

첫째, 한국이 획일화된 교육체제에서 창의성을 키워내지 못하고, 학생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둘째, 한국 학생들이 지나치게 미국으로만 간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것과 같다. 한국인들은 좀 더 국제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좀 더 넓게 봐야 한다.

교육품질관리와 관련되어 고등교육법 제11조 2의 1항에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 1항에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1982년 창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와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대학 간 협동성을 진작시킨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 법령과 평가는 대학국제화나 또는 대학 졸업생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볼로냐 선언의 목표에 포함된 ECTS 학점인정체계<sup>18)</sup>는 1년간 1500에서 1800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60 ECTS 학점을 받는다. 성적평가는 A (10%), B (25%), C (30%), D (20%), E (10%), FX, F로 구분하며, 석차를 알기 어려운 경우 FX와 F는 단순히 F로 나타낼 수 있고 A에서 E는 P 또는 Pass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미국식 성적으로 비교하면 각각 A, A-/B+, B, C+, C, F, F이다. 국내·외 대학 간 학점과 성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시간별 강의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선발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42조의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이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학기간 12년이라는 조건 이외에는 각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나 사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수학능력시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호주 대학은 영어성적과 호주 대학입학자격시험 A 레벨과 상응하는 해외자격증을 요구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영어과정, 대학에 비과정이나 석사학위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된다.<sup>19)</sup>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여 대학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예비과정이 필요하다.

15) 이영무. 연구역량 측면에서 본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대학교육 2005년 7. 8: 7-14.

16) 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ek.or.kr/> 2008. 4. 5.

17) 조선일보. 2007.12.22. <http://news.media.daum.net/economic/others/200712/22/chosun/v19353562.html>

18)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19) <http://studyinaustralia.gov.au/Sia/ko/WhatToStudy/EntryRequirements.htm> 2008. 4. 5.

## IV. 대학국제화의 걸림돌 해결방안

대학국제화의 걸림돌은 대학 내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대학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며, 대학국제화는 목표가 아니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며 실천계획이다.

첫째, 대학국제화의 비전, 핵심가치, 구체적 목표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대학국제화는 다양한 배경에서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 총장이나 국제교류담당자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 대학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하여 동문, 학부모, 정부도 맡은 바 역할이 있다.

둘째, 교수, 학생, 직원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유학생이 영어 수업을 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해외 유학생 시장에서 한글 간판으로 나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프랑스는 2007년 CampusFrance라는 것을 만들어 영어로 만든 유학생 유치 마케팅 자료를 사용한다.<sup>20)</sup>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상담을 하는 경우 100% 영어 수업이 가능한 전공분야가 없는 대학은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렵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전공분야에서 100% 영어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모든 전공분야나 학과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영어로 강의가 가능한 교수나 외국인 전임교원을 채용하거나, 영어로 강의가 어려운 교수를 대상으로 영어강의법 등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업과 관

련된 프로그램과 장학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학생 비자의 경우, 유학생 비자인 D2나 일반연수 비자인 D4로 구분된다. D4 자격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없으며, D2 자격 소지자도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국내 체류한 기간이나 대학에서 6개월 이상 과정을 마치기 전에는 시간제 취업이 불법이다. D2 자격 소지자가 S3 자격신청을 하면 주당 20시간까지 학기 중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어과정과 다르게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을 떠난 우리나라 학생을 대신하여 실험실을 지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 연구 성과를 내는 학생이기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국제교류담당자 모임이 한국<sup>21)</sup>, 아시아·태평양지역<sup>22)</sup>, 유럽<sup>23)</sup>, 미국<sup>24)</sup>에 있다. 대학의 국제교류담당자는 국내·외 전문가모임에서 주제발표를 하여 대학의 지명도를 향상시키거나, 교육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마케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08년 3월 동경에서 개최된 아·태국제교육협의회에 미국, 캐나다, 영국, 벨기에,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타이완 정부의 대학교육 마케팅담당자와 각 대학의 국제교류담당자가 이런 역할을 하였다.

### 필·자·소·개

#### 박전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수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 KIST 연구원을 거쳐 현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교류센터 소장,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수의학의 역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20) <http://www.campusfrance.org/en/index.htm> 2008. 4. 5.

21)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http://www.kafsa.or.kr>, 2008. 4. 5.

22) 아·태국제교육협의회. <http://www.apaie.org> 2008. 4. 5.

23) 유럽 국제교육협의회. <http://www.eaie.org> 2008. 4. 5.

24) 미국 국제교육협의회. <http://www.nafsa.org> 2008. 4. 5.